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정신

송성대*

목 차

- I. 서론
- II. 제주정신 정립을 위한 가설
 - 1. 지리학의 계몽성
 - 2. 제주정신 정립의 의의
- III. 환경과 생활문화
 - 1. 화산회토(火山灰土)와 생활문화
 - 2. 산고원야(山高原野)의 지형과 생활문화
 - 3. 풍다도(風多島)와 생활문화
- IV. 정신문화 인지도
- V. 결론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에 대한 저항을 시작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고고의 성을 올리는 탄생충격은 죽음에 대한 충격의 반응인 것이다. 실로 인간의 역사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저항사이기도 하다.

인간이 갖는 문화, 특히 정신문화는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환경의 자극에서 살아남기(surviving) 위해 인류의 각 집단이 저마다 궁리하여 만드는 절대 불가결한 필수품이다. 기호품이 아닌 것이다. 죽음에의 저항은 자연적 환경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도 대상이 된다. 종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탈냉전시대를 맞은 오늘의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Neo-liberal globalism)'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색과 함께 치열한 문화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추구는 인류 세 번째 말레니엄의 시작인 21세기를 맞으면서 중심보다는 주변, 모임보다는 흩어짐, 하나보다는 여럿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는, 즉 지역화 세계화라는 시대사조에 힘입은 바도 크다. 또한 그것은 동양과 서양이, 도시와 농촌이, 과거와 미래가 그리고 어른과 아이가, 남성과 여성이, 부자와 빈자가 만날 수 있는, 포스트모던 21세기의 인간주의적 삶의 이데올로기를 찾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는 작업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물론 시카고대의 슈레터는 보편주의의 개념을 '동일성이 전제되지 않는 보편주의(universalism without uniformity)' 라고 정의하고 있지만—서구의 보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여 왔고, 국가내에서는 중앙이 지방을 지배해 왔다. 주변의 민족이나 지방의 특수성은 비정상적이고 미개하다고 논의되어 왔고 그래서 서로간에는 늘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서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보편주의와 특수주의가 조화롭게 결합될 때 상대적(지역간), 절대적(세대간) 갈등과 진서의 조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이는 사회적 개념의 '개인주의(individualism)' 처럼 공간에서의 '지역주의(localism)' 이 강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집단이든 개체든 생존·생활을 위한 정신 인프라로서 'taboo'가 부정적 교지(否定的 教旨: ~하지 말라!)로 존재한다면, 'ism'은 긍정적 교지(肯定的 教旨: ~하여야 한다)로서 기능한다라 할 수 있다. 지역주의를 한국의 정치가 중에는 '지역동권주의(地域同權主義)' 라고도 부르지만, 지역마다 이제 제 살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는 마냥 그냥 가져 있게 되는 것(having culture)이 아니라 수시로 변용되는 것(doing culture)이지만, 위의 그런 상황이 근년에 이르러 지역마다 삶의 이념으로서 지역정신, 혹은 정체성 찾기에 골몰토록 하게 하고 있다.

지역정신 혹은 정체성이 '무엇이다(What)' 라는 것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접근해서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구조 해명(Why & How)과 종합 제시는 전통적으로 지역(region) 그리고 공간(space)을 주 연 구대상으로 삼는 지리학에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셴량이 "자연은 눈에 보이는 정신이고,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플라톤은 "자연은 형상(形相)이나 이데아와 거의 똑같은 것이다."라 설파한 것에서, 그리고 "역사는 시간의 지리 기술이요, 지리는 공간의 역사 기술이다"라는 말에서 이미 암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정신 찾기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자연환경과 이를 극복한 제주인의 삶을 추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주섬의 문화의 정체성이 이웃한 대륙과 열도, 그리고 특히 반도의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배타적 구분(exclusive separation)이 아니라 포괄적 구분(inclusive separation)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분석할 것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공통점 속의 차이점은 제주인으로 하여금 차이점 속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지식으로 이용될 것이다.

II. 제주정신 정립을 위한 가설

1. 지리학의 계몽성

조선 후기의 저명한 실학자인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 1803~1877)는 [추측록(推測錄)]에서 "변

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마땅히 그 변화로서 변한 것을 제어하는 것이지, 불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지리학을 깨우쳐 개화에 임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폈다. 즉 그는 음양 사상을 근거로 설명되던 종래의 지리학(理와 神을 좇는 中古之學)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노력을 새롭게 시도하여 세계 정세와 천문·지리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지리적 세계관(誠實有形之學=氣一元論)이 열리자 주자학적 세계관은 내재적으로 극복되고 개방적인 대외관을 갖게 되어 활발한 동서문화 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¹⁾

지리학의 계몽성은 서양에서 일찍부터 중시되어 왔지만, 칸트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큰 결함은 충분한 실제적 지식도 없이 이것저것 당치 않은 이론부터 내세워 알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먼저 환경으로서의 자연 및 인문 현상을 서술 이해하는, 구체적인 지리학적 세계부터 알도록 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지리학 이상으로 인간의 건전한 오성(悟性)과 양식(良識)을 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여 바른 세계관을 함양하는 데에 ‘지리학의 계몽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칸트의 그런 생각은 관념적 사색에 기초한 인생관이나 세계관은 너무 추상적이라 일반적인 설득력이 결여되어 독선적이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²⁾

이와 관련하여 언급해 둘 것은 쉐퍼(F. K. Schaefer)가 그의 “Exceptionalism in Geography, Methodological Examination”이란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하고 있지만, 그가 하쓰혼, 헤트너 그리고 칸트에 이어, 지리학이 독자성(?)만을 강조하여 예외주의(고립주의)를 고집 하는 것은 지리학으로 하여금 자폐적 안주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 비판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한경쟁의 시대라는 금후에 있어서는 학문간의 높은 울타리도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 가겠지만 특히 문화지리학은 쉐퍼의 경구를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하는 분야로 지리학의 자학문(子學問)인 많은 인접과학과 모자 관계를 유지하며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³⁾ 특히 지정의(知情意)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학문적 사조에서 볼 때 이는 대단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 설정 기준을 반증 가능성에 구하고, 검증 가능성과 유의미성을 가지고 형이상학과 과학을 구분하는 포퍼나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과학세계’와 ‘일상세계’를 분단되어야 한다는 주장들 때문에 지정의(知情意)에 대한 일관적인 연구는 넘지 못할 산으로 여기기도 한다. 흔히 그들은, 예를 들어 인간 이념의 표현인 사회적 규범은 경험적으로 확증되지 않는 것이므로 관념에 의한 결단(決斷)에 속한다라고 하여 자연적인 사실과정과 규범적인 사회과정을 각기 다른 대상으로 취급하여 이의 연계를 부정 아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최대 약점이지만, 이

1) 黃景淑(1995), “惠國 崔漢綺 사상의 근대적 성격,” [실화와 의식의 사회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제47집, 한국사회사학회, 문학과지성사, pp. 114~115.

2) 西川 治(1993), [人文地理學入門], 東京大學出版部, p. 3.

3) F. K. Schaefer(1953), “Exceptionalism in Geography, Methodological Examination,” A. A. A. G. 43, p. 226~249.

로 말미암아 인식행위와 가치평가는 분열하게 된다. 즉, 존재와 당위는 분열하는 것이다. 포퍼의 '사실과 결단의 이원론'에 의하면 논리적으로 사실(존재)로부터는 가치(당위)가 도출되지 않으며 또 가치로부터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제2세대 기수인 하버머스(Jurgen Habermas)는 과학세계와 일상세계의 분열을 막고, 실천문제와 기술문제를 결부시키는 데에서 과학의 영역을 확장 지으려 하는 의욕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원론이든 이원론이든 그 어느 경우도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삼연을 넘으려 하지도 않았고, 넘으려 해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과학세계'와 '일상세계'를 하나의 생활세계로 통일 인식하지 못하여 끝없는 논쟁만 계속되었다. 결론도 끝도 없는 어 지루한 논쟁의 지속이야말로 그들의 일 자리를 유지시키는데만 기여했을 뿐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자칭하면서도 그 과학성을 제시 못하는 마르크시스트들에서 잘 드러난다.

정통 마르크시스트들은 혁명이란 농민이 공업노동자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성공했는데, 마르크스에 의하면 성공했어야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의 혁명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내지 못하고 유보해 두고 있다."

라는 리콩턴의 주장에서 보듯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디에서 왜 출현했으며, 그것의 공간적, 시간적 전파가 선택적이 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 책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단위 면적당 토지 생산력이 낮아질수록 토지소유가 공유화되는 원리'의 문화지리학적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지리학은 가시적이고 사실적인 인지적 지식이해력만을 추구하는 데에 멈추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가치판단력, 그리고 의지적 행위결정력 등에까지도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인간을 지정의(知情意)로 통일된 실체로 보자는 태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지리교육이 지나치게 이론과 법칙 이해를 위한 인지 위주의 학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성한 지리교육분야에서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물론 지리교육이 지식교육 위주로 되어 온 이유는 가치판단과 관련된 정의적(情意的) 영역은 눈에 보이는 경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답이 명쾌하지 않아 논쟁의 소지가 많고 평가의 문제가 많다는 등하는 것과 관련된다. 하지만, 북미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하여 '가치화 전략(valuing strategies)' 모형들이 1970년대에 이르러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조가 1980년대 이후 영국으로 전파되

4) 尹河璠(1988), "프랑크푸르트학파의 現代的 意義," [광장], 1988.6월호, pp. 176~177.

5) 리콩턴(1988), "루카치 '역사와 계급의식' 조명," [광장], 1988.6월호, p. 213.

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지역간 국제간의 접촉 기회가 빈번해 짐에 따른 갖가지 갖가지 사회·경제·정치·문화·환경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개인적 집단적 가치의 혼란이 전개되어진 것과 관련된다. 특히 지리교육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장소의 경험이 중요하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장소의 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의 다양성과 인간행동의 유형을 가르치는데 많은 관심이 요구되었기에 정의적 영역의 교육은 더욱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었다.⁶⁾

지리교육에서의 가치·태도, 즉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목표나 연구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어디서나 '민주시민교육'은 빠질 수 없는 주요 항목이 된다. 그것은 지리교육이 전문가로서의 지리학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양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리교육이 현재와 미래 세계의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시민의 육성에 필수적임을 확신시키고 ……."로 시작되는 <국제지리교육현장>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계몽적 교육이 지리교육 쪽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논문이 쓰여진 목적이나 구성에서도 보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문화지리학에서 이론적 실제적 예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지리학이든 지리교육이든 공통점은 양자는 지리학으로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적인 교육만을 담당하는 다른 교육분야와 달리, '옳음(the right=義)'을 찾아 이해하는 지식교육, 즉 인지교육(認知教育)과 가치판단에 의해 '좋은(the good=善)'을 가려내는 가치교육, 즉 정의교육(情意教育)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야만 가치를 언어적 수준을 넘어서 행동화하며 나아가 내면화하는 것이 기대된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의 가치교육이 가치를 확인하는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육이 아닌 자유, 평등, 향토애, 민족애, 개인의 존엄성 등 하는 막연한 일반가치교육이나 충효 등 취약성이 많은 기성의 가치주입식 교육이 되고 있다하여 비판한 교육학자 김여철이 "가치를 심층적으로 내면화해 가는 과정은 동시에 분석·종합·추리 등과 같은 보다 높은 인지적 과정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주장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⁷⁾

물론 앞에 인용했던 말로서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회과학도를 격려하는, "한 사람 속은 모르지만, 열 사람 속은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있음을 우리는 안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란 개인의 가치가 모여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나 자유스럽게 개인이 결정되는 마음속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리학의 정의(情意)에 대한 교육은 구름잡기식의 따분한 정언명령식 내지는 주입식의 관념론적 교육이 아닌 가장 구체성을 띤, 그리고 가장 흥미있는 충족이유물에 입각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연성은 물론 우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6) 李京漢(1995), "地理科의 價値授業過程 開發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8.

7) 김여철(1992), "사회와 가치교육의 체문제," [달라져야 할 사회과 교육], 강우철 편, 교학사, p. 259.

사실상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바닥에는 필연성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한 그것은 우연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유알 라운드, 그런 라운드 하듯이 이제 '세계는 하나다.' '국제화다' '개방화다' 하면서 킬취 라운드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교통의 발달, 여행 교역의 증대 등에서 오는 문명의 보편화(civilization round)에 관한 것이지 고유한 지역의 문화가 하나가 되거나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문화의 지역화(local culturalization)에 대한 열정은 더 거세져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분리되었던 문화 단위의 민족은 통일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질적 문화를 갖고 있었던 민족들이 패권주의의 —근대사에 등장하는 광적이고, 선동적이고, 대립적이고 호전적인 그래서 전체주의적 사상 체계가 되어버린 왜곡된— 정치이데올로기 하에 부자연스럽게 통합되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던 나라들은 다시 원래대로 각기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환원되거나 되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2. 제주정신 정립의 의의

헌팅턴은 "탈냉전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데올로기나 정치, 경제가 아니다. 바로 문화다. 민족과 국민은 우리가 누구인가하는,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부심하고 하고 있다."⁸⁾고 말한다. 문화라는 용어는 곧 (지역)정신이란 의미로도 쓰인다.

유물론적 과학이라는 지리학에서 인류의 정신이라는 주제는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1946년 미국지리학회장이 라이트가 "가장 매력있는 미지의 땅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세계이다."라고 하여 유파(流派) 논문집인 정신지리학(Geographies of Mind) 혹은 심리지리학(psychogeography) 등의 논저가 나오면서 지리학계에서도 인류 집단의 정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에 문화지리학의 아버지라 부른 라첼은 동 식물을 대상으로 한 생물지리학처럼 인류지리학에서도 그 과정을 첫째 인류의 거주지역을 기재하고 지도화 하는것, 둘째 민족의 분포와 운동을 토지와 관련시켜 연구하고, 세째는 인류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자연의 영향과 그로 인한 민족의 특성 파악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지만,⁹⁾ 세 번째 인간의 의식 혹은 정신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한 사조는 전 유럽적인 민족주의의 등장과 관련된 것으로 그때의 '정신'이란 헤겔이 명명한 '가이스트(geist=민족정신문화=culture)', 그리고 라첼이 명명한 'Völkergedanken(민족의 얼)' 즉 민족정신(민족성)에 해당

8) 새뮤얼 헌팅턴(1996),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이희계 옮김(1997), 김영사, pp. 18~20.

9) EDMUNDS V. BUNKSE(1981), "HUMBOLDT AND AN AESTHETIC TRADITION IN GEOGRAPHY", The Geographical Review, April, 1981, Vol.71, No2, pp. 127~129.

山野正彦(1972), "F. Ratzelの再評價に關する一つの試み", 人文地理, 24卷3號, p. 245.

한다. “문화는 지리에 의해서 창발되고 역사에 의해 계승된다”라 하지만, 헤르데르는 민족정신(민족성)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두 개의 축이 달린 ‘수레’로 보았다.

그런데 흔히 말해지는 정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에 대해서 프랑크대학의 자연과학자(생물학자)인 장 피에르 상쥬 교수마저도 “도대체—자명한 것인데—정신에 대해 새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라 반문하고 있으며, 역시 파리대 물리학 교수인 장 E. 샤통도 “도대체 물질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물질이란 정신의 한 모습에 불과한 것인데”라고만 대답하고 있다. 사전에서는 정신을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이라고 단순히 정의하고 있고, 철학에서는 인간의 ‘지성적·이성적인, 능동적·목적의식적인 능력’ 이다라 하여 좀더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정신은 ‘환경을 감응하여 지성의(知情意)의 능력을 발휘토록 하는 인간의 의식’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심성(mind)은 눈에 보이는 정신(sprit)이며, 정신(sprit)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성(mind)이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인 심성과 정신의 개념을 사회과학적 그리고 집단적 개념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ship(pioneership, knightship, seamanship...)’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빈개념으로 말할 때는 그것이 정의적(情意的)이기 때문에 Ideology(이념)라 할 수 있겠다.

‘정신의 본질은 활동’이지만, 벨헤름(Richard Wilhelm)은 “정신(魂)이란 어떤 무게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량화, 가시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은 없다. 그러나 정신(魂)이 창조적으로 응축되었을 때, 또 긴장으로 인해 생겨나는 목적이 흡인력을 낳는 그러한 것일 때, 정신은 이 지구상에서 어떤 다른 것(에너지)보다도 강력하다.”고 했다. 동양의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란 말이 생겨난 것도, 왈러스타인(I. Wallerstein)이 “정신은 현실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위한 이념적 무기(ideological weapons)다”¹⁰⁾라 한 것도 모두 그에 관련시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의도적이든 자연스럽게든 집단 정신의 정립(nation building)의 여하에 따라 집단은 생존전략과 그로 인한 삶의 질은 달라진다. 그래서 근대국가가 탄생하면서, 그리고 산업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면서 저마다 자신들의 정신(정체성)을 찾아 나선 것이다. 물론 동양권에도 서구열강들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노력은 가시화되어 소위 중체양용(中體洋用; 중국), 화혼양재(和魂洋才; 일본), 자주채서(自主採西; 한국)를 부르짖은 것이다. 물론 문화의 구조조정에 취약했던 한국과 중국은 근대화에서 시간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한국에 있어도 전통적으로 지방민의 심성에 대해서 논해 온 바가 있다. 물론 이 8도 지방민의 심성을 통합하여 단일민족의 심성 즉, 민족정신을 추출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다만 회자되는 말로 한민족의 정신은 선비정신, 불패정신 그리고 한(恨)의 문화, 오기(傲氣)의 정신, 은근과 끈기, 신명(神明)·신바람정신 등이라 하지만 어느것도 일의적인 정신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10)I. Wallerstein(1991), Geopolitics and geoculture, CAMBRIDGE UNIV. PRESS, p. 160.

〈표 1〉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도민별 성격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김 태 오	완강솔직 (頑強率直) 용왕매진 (勇往邁進)	쾌활원기 (快活元氣) 편급용맹 (偏急勇猛)	인고절제 (忍苦節制) 근기지속 (根氣持續)	사교다능 (社交多能) 경조부박 (輕佻浮薄)	은후착실 (溫厚着實) 신중평정 (慎重平靜)	은후명랑 (溫厚明朗) 안일평정 (安逸平靜)	세심주밀 (細心周密) 우유부단 (優柔不斷)	침착실행 (沈着實行) 강기과단 (剛氣果斷)
윤 행 임 (최남선)	이전투구 (泥田頭句)	청산맹호 (淸山猛虎)	석전우경 (石田耕牛)	경중미인 (鏡中美人)	암하노불 (岩下老佛)	청풍명월 (淸風明月)	풍전세류 (風前和柳)	태산교악 (泰山喬岳)

자료: 金秉午(1955), 「民族心理學」, 有吉書店, p. 358. 李夢日(1991), 「韓國風水思想史」, 明實文化社, p. 131. 「龍鎮天祕訣 八道名山秘」, 「京畿道史」, 第二卷, 1982. 丙庵海(1985), 「韓國의 風土와 人情」, 「歷史를 만든 韓國人」, 韓國出版公司, pp. 328~344(泰山喬岳: 산악처럼 우직하며 변화하지 않고 거칠고 기생, 風前和柳: 바람 앞의 버들가지처럼 변화에 유연성을 가져 부드러움)

* 제주도인 성격에 관한 것은 필자私語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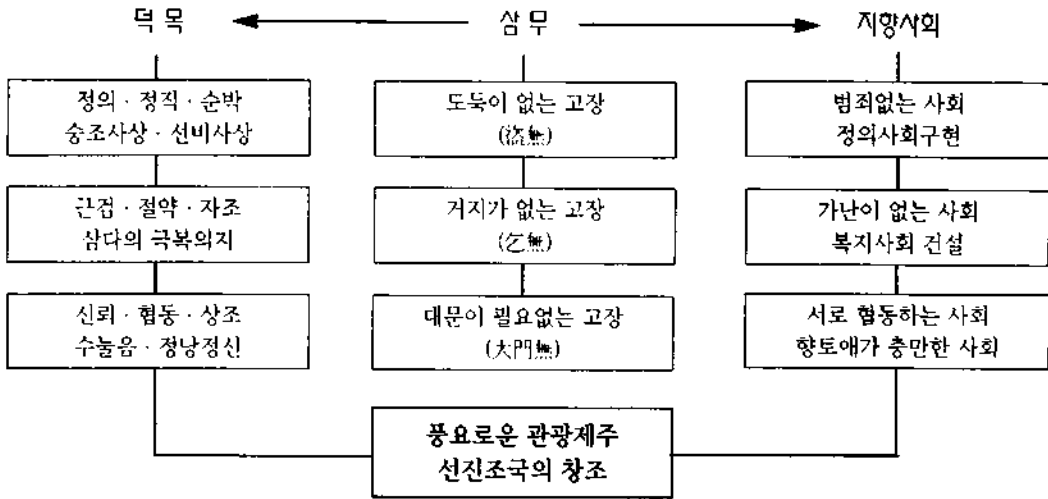
제주도 사람들의 심성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를 지나 1960년대까지는 주로 외지 이방인들에 의해서 논의되어져 왔고, 그 이후 1980년대 초까지는 제주인 스스로에 의해서 도민의 심성을 구명하고 여기서 도민의 정신을 도출하여 제주인의 문화이데올로기로 삼으려는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그것은 생업과 언어¹¹⁾, 신앙생활을 비롯한 생활환경이 급변하는 전환기를 맞아 '역사지속성(歷史持續性)'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느끼면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국가적으로는 국제화, 세계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아울러 지방화라는 말이 주창되기 시작하면서 제주인의 아이덴티티 정립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다.

제주인의 아이덴티티 정립과 생활 이데올로기를 찾기 위한 집중적이고 학적인 연구의 시작은 1979년도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지원하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연구 주체가 되어 '탐라정신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 결과는 다음 표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삼무정신(三無精神)'으로 귀결짓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결론 부분에 "제주의 삼무는 온 인류의 아상이기에 이를 '편의상' 삼무정신이라 하고 이는 영원히 지향해야 할 윤리규범"이라 하여 '편의상'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문제지만 정신(이념)과 규범(계율)을 혼동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민족이 삼강오륜을 으뜸 규범으로 쳐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11) 언어는 종교와 같이 하나의 문화 특히 정신문화를 특정 지우는 기본적 요소다. 따라서 특정 언어가 변화하고 있거나 사라졌다는 것은 종족은 그대로 있어도 그 문화가 변화하고 있거나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고 또 주문(呪文) 혹은 말없는 말인 기도(祈禱)가 있지만, 언어는 언령(言靈)이라 하는 바와 같이 정신문화와 관련된 소위 정령(精靈)을 움직이는 것으로 태고 때부터 사람들은 믿어 왔다.

〈표 2〉 제주도 초·중등학교 정신교육 덕목



자료 : 서귀포여자고등학교의 덕목에 거시된 제주도 지역정신 교육자료(1993년 현재)

민족의 정신을 강상정신(綱常精神)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때문이다. 여기에 송조사상·선비사상을 삼무정신에 건강부회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크다. 특히 이 정신은 하바드대학교 정치학자인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그의 *The Third Wave*(1991)에서 '유교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형용모순(形容矛盾: '뜨거운 얼음'이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모순된 지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물론 많은 한국의 지성들이 이를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정신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정신은 먼저 지역을 지탱해 온 전범인(典範人) 즉 동일시(identification)의 대상(人格)을 먼저 찾아내야 하는데 삼무정신은 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동일시의 대상은 여럿이 되지만 정신적 정체성을 가지려면 통일된 하나의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갖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체성이란 말은 현상을 분석해가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현상의 전체를 파악하려는 의미이며, 종래의 어떤 용어도 이것을 표현하는 적절한 용어가 없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지역정신이 대중적인 공감을 얻어 하나의 정신문화로 성립하려면 ① 자아정체성 확립 ② 지역적이면서 보편적인 행동지침 ③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 ④ 지역공동체 의식 고양 ⑤ 미래지향의 계도력(啓導力) 등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삼무정신은 다섯 가지 조건 중 특히 ②와 ⑤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제주정신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먼저 이를 위해서 제주인의 심성을 찾고 여기서 가설로서 제주정신을 제시해 보자.

〈표 3〉 공동체정신으로서의 이념문화 알아맞추기

	미국정신	중국정신	일본정신	한국정신	조선(북한)정신	제주정신 (Chejuism)
심상이념	개인적국가주의 (市民社會)	집단적계체주의 (臣民社會)	지역적집단주의 (臣民社會)	가족적집단주의 (臣民社會)	민족적집단주의 (人民社會)	? 주의 (?民社會)
표상이념	개척자정신 Pioneership	군자정신 Confucianism	무사정신 Samuraiship	호강정신 Hogangism	혁명가정신 Revolutionism	? 정신
실천이념	실용주의	평등주의	수분주의?	출세주의	평등주의	? 주의(삼무정신?)
인간관계	zero-sum game	win/win game	zero-sum game	zero-sum game	win/win game	? game

이방인들이 직관적으로 규정한 제주인의 심성과 정신

- ①강하고 활기있는 생활력
- ②의뢰심이 적고 자영자족(自營自足)을 존중
- ③근검질실(勤儉質實)하여 경제사상이 발달
- ④전통적으로 기개(氣概)가 부(富)하고 용맹함
- ⑤위기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단결
- ⑥배타성이 있음¹²⁾
- ⑦자존심이 강함
- ⑧시의심(猜疑心)이 강함¹³⁾
- ⑨공존공영심(共存共榮心)이 약함¹⁴⁾
- ⑩표한(標悍)·방사(放肆)함¹⁵⁾

12) 제주인에게만 배타성이 있다고 하는 듯 하나 "진정 누구나 진부하다는 인종중심주의(banal ethnocentrism)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집단에나 있다. 배타성이라 하면 오히려 한국인의 배타성은 세계 제1이라고 하고 있다. 강준만("집단주의와 성격의 상품화," 『자성과 패기』, 1994, 9·10월호, 선경그룹, 1994, p. 152.)은 "과거 일본인들이 '조선 쟁'이라 하여 한국인을 경멸했듯이 재미교포들이 흑인들을 '깜둥이'라 놀려대는 사람이 많다는 것, 지구상에서 화교가 제일 뿌리내리기 힘든 나라라는 것, 개만도상국에 진출하여 우월의식을 갖고 현지인을 혼대하는 것, 국내에 살기 취업한 중국교포에 대한 흉대, 한국 내의 어느 특정 지방 사람은 아예 사람으로 보지 않는 술한 예에서 한국인의 배타성은 발견된다."라고 하고 있다. 제주인들이 '육지갓', '밖의갓'이라 하여 육지사람(한반도인)을 혐오하는 것은 한반도인의 출가해녀 착취, 이재수 난(李在守亂), 4·3사태(서북청년단과 철도경찰단의 양민학살, 70년대 외래자본의 투기성 개발 등과 관련된 것이다.

13) 제주인 특유의 평등주의에서 왔다.

14) 논농사시대가 두레 농경을 하고 강한 가족적 집단주의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 것이다.

15) 서양이나 제주섬의 경쟁주의, 신거·분가제 등을 이해하지 못한 고루한 그리고 권위주의 숭상의 논농사 유교의식에서 명한 것이다.

이 제주인의 심성을 수렴하여 <표 1>의 8도 지방민의 심성과 비교되도록 정리하면 제주 사람들은 “무의기개(無依氣概)의 광풍축석(狂風矗石)과 같은, 그리고 쾌단질박(快斷質朴)”한 심성을 갖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어떤 계층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즉 제주사람들이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한반도나 일본, 중국 사람들과 공통점(유교문화) 속의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위의 5가지 정신문화의 정체성 조건에 부합되는 제주인은 누구라 할 수 있는가?

Ⅲ. 환경과 생활문화

1. 화산회토(火山灰土)와 생활문화

예나 지금이나 몬순 아시아인 동양권에서의 가장 가치있는 농사는 논농사였다. 쌀은 존재하는 알곡 식량 중 가장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영양가가 있고, 가장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가장 인구 부양력이 높다. 그래서 옛부터 가장 선호하는 식량으로, 가장 귀중한 화폐(米貨)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쌀 생산은 수도작(水稻作)이라 하는 바와 같이 물을 관개(灌溉)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은 절대절명의 자원이었다. 따라서 물을 논에다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의 방법에 따라 같은 논농사지역이라도 생활문화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신문화의 원형이 형성된 전통사회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관개법은 지역의 강수량과 강수유형은 물론 수원(水源)이나 지형에 따라 각기 다른 적응양식을 보이게 되는 것은 역시 당연하다. 때문에 같은 동아시아권으로 한국·중국·일본은 유교문화권이라 하지만 서로 모두는 다른 역사의 궤적을 그려올 수밖에 없었다.

흔히 말하듯이 중국은 허허벌판의 ‘평원의 나라’, 일본은 산간분지의 ‘산지의 나라’라고 하고 한국은 그 중간성을 띤 비산비야(非山非野)의 ‘구릉의 나라’라고 한다. 이들 나라들은 또한 대륙도(大陸度)와 위치로 인해 장마와 강우현상의 영향도 각기 달라진다. 때문에 중국은 평원을 관류하는 내륙의 산악지에서 공급되는 하천수를 관개하여 경지가 산재할 수 있어 대가족제를 이루면서도 균분상속제에 의한 개인주의가 어느 정도 싹틀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산간분지의 구배가 급한 좁은 하천 유역의 경사를 이용하였기에 단자상속제가 나타났고 전형적인 봉건장원제를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경험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평원과 산지가 섞인 구릉성 준평원에서 편리하게 골짜기의 물을 논에 대기 위해서는 논외의 자리를 잡는 것이 선결 문제였다. “논은 자리로 해 먹고, 밭은 거름으로 해 먹는다”라는 속담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속담은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속담이지만, 중국 화북지방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풍수지리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중국의 남부나 특히 한국에만 성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문장이다.

‘풍수지리’ 하면 도읍 취락자를 앉히거나, 개인의 집을 지을 자리, 묘자리는 물론 농농사의 입지론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어느 경우나 산불근(山不近) 강불근(江不近)의 ‘배산임수(背山臨水)’를 택하라고 한다. 즉 산을 뒤에 두고 물을 앞 건너편에 끼고 있는 곳이 명당이라는 결론이다. 한국인치고 이 결론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 하면 그곳은 양지 바르고 연료와 물 구득이 용이하고, 호환(虎患)과 산사태, 수재(水災) 등을 피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되기 때문이다. 배산임수의 입지 사상은 평원이거나 분지상 중심부에 취락이 입지하게 되는 중국어나 일본인과 무관한 사상이다. 중국인들이 풍수론에서 지세향(地勢向: 高坐低向)을 중시하는 한국과 달리 천체향(天體向: 北坐南向)을 중시하는 것도 그와 관련된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배수임수의 명당은 흔치 않기 때문에 오직 권력과 재력을 가진 권문세가들만이 차지할 수 있었다. 일단 권문세가들이 차지하면 그곳은 후손들이 대대로 살게 되는 세거지(世居地)가 되는데, 이는 곧 동족취락(同族聚落)의 발생을 의미한다. 이것이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이나 중국만 아니라 세계에 유례없는 혈연 기반의 혈연공동체가 출현하게 된 배경이다. 이 혈연공동체를 강력하게 통합하기 위한 수단은 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방법 말고는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의 취락에만은 가족 단위의 사당(祠堂)이 반드시 있게 된다. 사당에서는 오직 자신들의 조상 업적만을 기리고 ‘일조백손사상(—祖百孫思想)’의 집단 의식, 즉 ‘다른 성씨는 남이다’라고 가르친다. 물론 그 종교이데올로기는 ‘효(Hyo: 孝)’와 ‘제(BIGBROTHER: 悌)’였다. 그 종교가 바로 충효를 내세우는 유교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과 같은 균분상속제(추첨균분상속제- 財產權 중심의 사회)나 일본과 같은 단자상속제(지명일괄상속제- 家督權 중심의 사회)는 나올 수가 없었고, 장남우대상속제(당연차별상속제- 祭祀權 중심의 사회)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르 불레는 단자상속제(單子相續制)나 균분상속제냐에 따라 그 사회가 평등사회인가 불평등사회인가를 가늠하고 있지만 유례없이 한국으로 하여금 남,녀,노,소를 유별하여 불평등의 수직적이고 강력한 가부장문화를 갖게 된 원인이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소작인을 양산시켜 한국인들 모두로 하여금 권리지향의 호강정신(豪強精神)을 갖도록 한 근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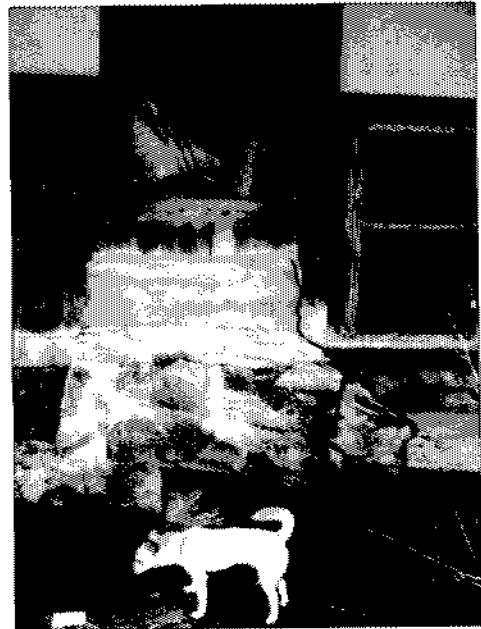
그러나 제주섬의 토양은 거의가 제주 사람들이 ‘똥땅’이라 부르는 화산회토이다. 화산회토에는 물을 저장할 수 없다. 모두 투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밭농사밖에 할 수 없다. 여기에 재땅(灰土)이기 때문에 유기질이란 있을 수 없을뿐더러 염기마저 최다우지가 되어 씻어가 버려 산성토를 이룬다. 이것은 물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 이웃간에 갈등을 없이 하였지만, 농지를 분산토록 놔뒀으며, 부지런히 거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였다. 농지의 분산에 대한 적응은 곧 균분상속제와 혼성취락을 형성하도록 하였고, 거름 생산의 자극은 양돈축간(퐁돼지 축간)의 문화를 갖도록 하기도 했다. 물론 퐁돼지 문화는 제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반도부는 물론 일본(유구열도)이나 중국,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주섬에는 없고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퐁돼지문화와 경북 김천시의 추

〈그림 1〉 전라도지방의 돌동시(甬洞時節)



1907년 9월 촬영. 전라남도 담양군 마장면 구룡리, 송리마을 3도목. 한반도에서 마가 새 둥지 돌동시(甬洞時節)이다. 이 지방 사람들이 돌동시라 부르는 이 축돌은 돌을 고리 받듯 놓아 위에 다윗가지를 걸쳐 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닭을 모는 닭만 놓으면 노닐거나 아이들이 빠져 죽을 염려가 없어 매우 안전하다. 역시마구에서 나오는 우물은 수시로 얹혀 소마구로 옮겨 두었길 말한다. 제주 오서할 무렵이 될 무렵에도 닭을 마시 왜지마구를 돌동시 없이 늘 걸고리며 소마구로 우물을 옮기는 것이다. 돌상 사이로 토끼 주둥이가 보인다.

〈그림 2〉 경상도지방의 돌동시(黃絃洞時節)



자료: 1906년 10월 촬영. 경남 산청군 당성면 남사리 崔氏家. 약 30cm 높이를 갖는 계단 다섯개를 놓은 것은 다윗축간이다. 이 돌동시에서 나오는 우물을 비탈에 모아놓은 내직경 20cm, 길이 25cm의 석관 우렁이가 세워졌다. 이 우렁이에 고이게 되는 닭노는 기둥이 재소비에 후렸다. 오랑썩의 형제 다툼으로 이용되는 공간에 배태자를 앉는다.

풍령동돼지문화만 남아 있다. 그러나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오직 인본 처리를 위해 길러졌을 뿐이다. 제주도만큼 거름 확보가 절실하지 않았던 한반도부에서는 집집마다 개를 길렀다. 전통 사회 한반도부에서 시집가는 여자는 반드시 강아지를 끌고 갔다. 자기가 낳은 아기의 똥을 개가 치우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한반도부는 '똥개문화권'이 되었고, 그 똥개는 보신탕용으로 이용되었다. 제주도 사람들은 옛부터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

균분상속제를 행하였기에 제주 사람들은 부자간, 형제간이 모두 남남이 되었다. 그것은 곧 저마다 개체적으로 자립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애비아덜간 범벅도 그릇그성 먹으라!(아버지와 아들간에 범벅을 먹을 때 미리 선을 그어 자기 몫만 먹으라!)", 그리고 "정제가 하영 이서도 다 위세뿐이라, 다 질루지만씩 살아야메!(형제가 많아도 위세뿐이다. 다 각자 알아서 의지하지 말라)"라는 격률에 모두 동의하여 실천한다. 이러한 독특한 균분상속제가 '타리저성', '모듬별초', '점부조', '신구간', '역내혼(域內婚)' 등의 문화를 갖도록 했고 개체주의와 함께 대동의를 동시에 갖도록 했다. 개체와 대동의 인정은 곧 경쟁과 연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심백이랑 허곡 계움이랑 허질 말라!(경쟁이랑 허곡, 질루

는 하질 말라!”라는 격률이 제주섬에만 있게 된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러나 혼성취락의 전통을 갖기에 보다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의 신앙체계를 가져야 했다. 그렇게 만든 것이 한반도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마을 내 각 성씨의 입촌 개척시조를 모두 상징적으로 모신 본향당(本鄕堂)의 문화를 창조했다. 이는 효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일조백손사상과 대조되는 대동(大同)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백조일손사상(百祖一孫思想)을 낳도록 했으며, 그것은 자연공동체의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처였다. 본향당신의 아래서는 벼슬한 조상이 아니라 그 땅을 개척한 조상이 중요하며, 저기에는 수직적인 인간관계는 의미가 없다. 오직 평등만이 있을 수 있다. 평등이 전제된다면 그것은 연대의식과 함께 경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선인들은 “놈의 대동하라!(남과 같이 행동을 일치하라!)”라는 말을 흔히 썼다.

2. 산고원야(山高原野)의 지형과 생활문화

제주도의 지역구분은 평면적, 수직적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기후 및 토지이용 경관에 의한 수직적 지역구분, 즉 해안지대(해발고도 200m이하), 중산간지대(해발고도 200~600m), 산악지대(해발고도 600m이상)라 하여 이용된다. 제주도의 총면적 1,828.3km² 중 해안지대는 전체 면적의 54.3%인 993.3km²가 되며, 산악지대는 246.0km²로서 13.5%, 그리고 그 사이의 중산간지대는 전체 면적의 32.2%에 해당하는 589.0km²가 되고 있다.

이들 3지대는 모두 저마다의 특성 때문에 제주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저평한 해안지대는 기후가 온화하고 용천지대로 물이 풍부하고 또 농경에 유리하게 토심이 깊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접근성이 용이하여 각종 퇴비용의 해조류를 구하기 쉽다. 여기에 농사 외에 바다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도외와의 정보 교류도 가장 활발한 지대가 된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 해안지대는 인구밀집지대가 되었다.

물론 중산간지대는 해안지대보다는 경사가 급하나 산악지대보다는 완만하여 넓은 평원을 이루기 때문에 농경이 가능하나 기후가 불순하고 일조량도 작은 위에 토심이 얇을 뿐만 아니라 토양이 척박하여 농경에는 불리한 지대가 된다. 그래서 토지이용 경관에서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혼합하여 나타나는 지대가 되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중산간지대는 제주인의 내륙 개척전선지대로 황무지로 존재했다. 황무지이기 때문에 이 중산간지대는 매년 봄이 되면 불을 놓아 잡목을 태워 청소를 하면서 양질의 목초를 자라도록 하여 방목지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다보니 이 지대는 초원지대라는 인공극상을 이루게 된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토지가 척박할수록 사유제보다는 공유제의 문화가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중산간지대는 마을마다 길러지는 마소를 방목하기 위한 공동목장이 공유제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중산간지대의 경관 내지 문화는 제주도 말고는 한반도부는 물론 이웃한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전혀 볼 수 없으며, 다만 유럽의 전통 삼포식농업에서나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 정신

〈표 4〉 전 답지역간 및 도시간의 주요 농업자표비교

지역별	전체인구에 대한 자가노동비	전체인구에 대한 머슴의 구성비	여자 100에 대한 남자인구	경지면적에 대한 논의 구성비	총경영면적에 대한 야초지의 구성비
논농사지역	36.7	2.0	95.4	83.0	0.5
밭농사지역	36.8	0.8	100.5	17.0	0.2
도시지역	36.3	2.1	94.9	65.0	0.0
제주도	50.3	0.3	81.4	2.5	21.2

자료: 대한민국 농림부(1964), 「1960 農業現況調査—시군읍면통계—」에 의해 작성함.

논농사지역: 논 면적이 경지의 80% 이상이 되는 군으로 전북 김제, 옥구, 경남의 양산, 동래, 김해, 창원을 선정하여 평균함.

밭농사지역: 밭의 면적이 경지면적의 70% 이상이 되는 군으로 강원도의 영월, 평창, 정선 등의 3개군을 선정 평균한 것임.

도시지역: 한국의 5대성 중 제주도를 제외한 거제도, 진도, 남해도, 강화도 등에 해당하는 값을 평균함. 도시지역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45~74%의 범위를 갖는다.

* 제주에서는 자가노동 외의 노동력은 소위 '놈'이라 부르는 싯노동자에 의한다. 그리고 머슴이라고 해도 한반도의 달리 일종의 한시적인 계약 노동자인 '두살이' 즉 '작업(作男)'이라 부르는 머슴에 의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말하는 머슴은 제주에는 없었다는 결론이다.

평원 중산간지대의 토지이용은 지금도 큰 변화가 없이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면적의 45.9%가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농경지로 가용한 토지도 30.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대는 열악한 생산력을 갖기에 개인소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거의 무주공야(無主空野)로 남아 있었다. 때문에 누구라도 의지만 있으면 중산간지대의 토지에서 자신의 '친밭', '새밭', '목장밭'이라 부르지만 가경지(可耕地)를 가질 수 있었다. 즉, 해안지대의 궁핍한 사람은 조금 고생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언제라도 이 중산간지대로 올라와 감자, 수수, 메밀 등의 작물을 화전에 의해 경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조건이 제주섬에서 소작농을 없애 하고 정착농경사회에서 유례없는 자작농의 세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제주인으로 하여금 자유·평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했고, 개체주의의 자존심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5〉 중산간지대 토지이용현황(1997)

	취락지	밭	과수원	시설농경지	초지	산림지	잡목지	시설용지	관광 시설용지	기타	계
면적(km ²)	1.0	32.3	19.3	0.5	270.7	172.5	72.6	9.8	5.3	10.3	589.0
비율(%)	0.2	5.5	3.3	0.1	45.9	29.3	12.3	1.7	0.9	1.7	100.0

자료: 국토개발연구원(1997), 「중산간지역종합보고서」, 국토개발연구원, p. 18.

왕토사상이 있었던 조선조 때의 토지 소유관계가, 토지 생산력이 극히 높은 논농사 중심의 한반도부에서는 '국가적 영유—지주적 소유—소작농적 점유'라는 중층구조였다면, 변방이며 열악한 토지 생산

력을 갖는 제주는 '국가적 영유—자작농적 소유' 라는 단층구조를 가졌던 것이 제주로 하여금 농노적 소작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이유이다. 이것은 유럽이나 일본의 성벽으로 에워싸인 장원과 다르고, 혈족에 의해 둘러싸인 한국형 봉건 장원인 양반들의 '반족농장(班族農莊)' 내의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소작인으로 이루어진 상황과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다. 즉 신분과 계급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던 특히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부의 논농사지대에는 1920년의 예만 보아도¹⁶⁾ 한국 농민 전체의 3.3%만이 '호강(豪強)'이라 불렸던 양반 지주였고, 19.5%는 자작농, 그리고 나머지 77.2%가 머슴에 가까운 소작농이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부는 제주섬과 달리 평균해서 농민의 70% 내외가 소작인이 되어 관에서도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하여 호강과 그 밑에 있는 제주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모르는 악명 높은 세리(稅吏)라 할 '마름(畝擘)'에게 대부분의 농가가 시달린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¹⁷⁾ 당시 농민인구의 3.3%에 해당하는 지주가 전국 논 면적의 64.3%, 전국 밭 면적의 43.3%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곡창이라 불리는 호남지방 김제군 하나의 군이 생산하는 식량은 강원도 전도의 생산량과 같았다.

한반도부에는 "우는 애와 마름에게는 못 당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특히 평야로서 부재 지주가 많았던 호남지방은 그러한 현상이 더욱 극심해서 그만큼 민란도 많았다.¹⁸⁾

자작농지대라 하여 제주도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부의 머슴에 해당하는 'ㄷ살이'가 있었다. 즉 빈한하거나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15~16세 정도가 되어 어느 정도 노동력을 갖춘 아들이나 딸을 비교적 여유 있는 이웃이나 다른 마을의 광작농가로 더부살이(入住賃勞動者)하도록 내보내었다. 이때 주가(主家)에 들어온 남자아이는 '작남(壯男)' 혹은 'ㄷ살이', 여자아이는 'ㄷ살이' 혹은 '아기업개'라 부른다. ㄷ살이는 일본과 같은 양자 혹은 '무코요시'(婿養子; 테릴사위)도 아니고 한반도에서의 영속적 종살이도 아닌 한시적이고 계약적인 더부살이다. ㄷ살이는 본인이 특별히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한 보통 결혼 연령에 이르면 —결혼 이전이라도 자립 조건을 갖추었다고

16) 慎錫廣(1990), "朝鮮王朝末, 日帝下 農民의 社會的 地位와 經濟的 狀態," [韓國史 市民講座], 潮閣, p. 101.

17) 송복(1990), "지역갈등의 역사적 설명," [韓國의 地域主義와 地域葛藤], 韓國社會學會 編, 星死社, p. 23.

18) 黃善明 외(1983), [韓國近代民衆宗教思想], 학민사, p. 21.

진주민란을 비롯한 동학의 발상이 영남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민중운동으로 전개된 것은 전라도 일원이었다. 그 이유는 호남을 예향(藝鄕)이라면 영남은 문향(文鄕)이라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鄕魯之鄕(孔孟之鄕)'이라 하지만, 영남은 이퇴계 이래 산간분지의 땅에 재지주(士族)가 향족화하였다. 그러나 광활한 평야지대인 호남지방은 궁둔전, 궁방전, 관둔전 등이 많아 부재 지주가 많았다. 그래서 이들에 의한 수확의 반출과 강징, 지방관료의 수탈이 심하여 농민층의 분해와 동요가 심했다. 그리고 영남지방은 유교에 의한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호남지방은 참위설(예연설)과 미륵(革世主)신앙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아직도 호남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중종교에서는 유교례를 '虛禮', 腐儒'라 비난하여 차별하려 한다.

판단되면— 주가(主家)와의 계약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제된다. 즉 ㄷ살이는 육친(六親: 父, 母, 兄, 弟, 夫婦, 子)의 정을 그리며 ㄷ살이하는 동안 숙식으로 외에 주가로부터 받게 되는 노임을 지속적으로 친가에 보내어 저축하였다가 자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독립해 나오게 되는 ㄷ살이는 일가를 이루어 평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ㄷ살이제는 이와 같이 정(情)의 품앗이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계약제에 의한 것으로 자신이 부지런하여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재산은 자신의 것이 된다. 항시 평등을 지향해 온 제주 사람들은 “아기업개(머슴살이 식모) 말도 들어서 ㅎ다”라는 말을 곧잘 하지만, 양상이 좀 다르기는 해도 일본과 같이 단자상속제를 가졌던 유럽의 전통사회에서도 제주도의 ㄷ살이제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¹⁹⁾

이러한 자유, 평등한 삶이 제주섬으로 하여금 자존심 강하고 주인의식(ownership)을 강하게 하여 도둑과 거지가 없는 섬이 되어 가도록 했다.

3. 풍다도(風多島)와 생활문화

제주도의 다풍현상은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 24시간 평균풍속을 보면 제주는 4.7m인데 서울은 2.5m, 중강진이 1.3m로 한국에서는 북쪽으로 갈수록 풍속은 낮아진다. 계절별 풍세(風勢)를 보면 제주에 있어서는 폭풍(10m/s이상) 일수는 겨울이 36.7%로 가장 많은 일수를 보이며, 다음이 27.3%의 봄, 여름과 가을이 각 17.9%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태풍(17m/s이상)만을 기준하면 한반도는 연 1.5회며, 풍다지역인 울릉도가 2.5회이나 제주도는 2.6회로 한국에서는 최다지역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지역간 태풍 회수나 풍속의 평균적 비교의 의미는 크지 않는 바, 제주도는 그 폭풍우의 위력과 그로 인한 재해의 양이 한반도부에 비해 최소한 3배 이상이나 된다. 그것은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에 있어서 풍세(風勢)를 가감시키는 표면효과(表面果)가 육지와 다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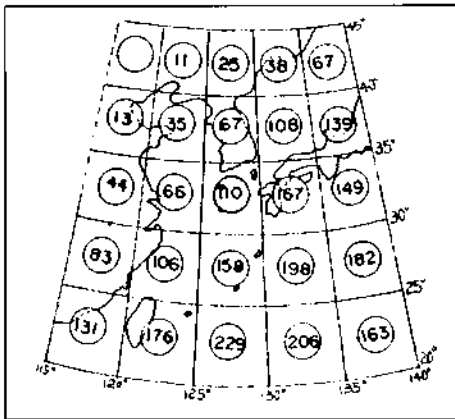
봄철에는 고온건조한 양쯔강기단에서 기원한 따뜻한 바람(마파람)을 몰고 오는 온대성저기압과 함께 겨우내 대만 부근에 자리하던 제트스트림이 북상하면서 잡아끌어 올리는 인형현상(引形現象)을 일으켜 극심한 악천후가 제주에는 지속된다. 제주에서는 이 시기를 소위 ‘영등달’이라 한다. 영등달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건조한 혹은 비를 동반한, 갈피를 못잡는 ‘영등바람’인 돌풍(狂風)이 여름철의 태풍보다 더 거칠면서 번덕스럽게 몰아쳐 많은 재난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천후 현상을 오랜 동안 경험한 제주인들은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바람의 여신(女神)인 —바람이 심하지 않은 한국 서해안에는 바다의 신으로서 ‘조기신(石魚神=임경업장군)을 모시는 영신제가 있지만— ‘영등할망’을 모시는 문화를 만들어 냈고, 제주도 특히 해촌 주민들에게 ‘칠머리당굿(제주시 건입동)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까지 끈질

19) M. 미메로(1982), “전산업사회의 대가족의 신화,” 박숙자 역(1995), [가족과 성의 사회학], 박숙자 외 편역, 사회비평사, p. 281.

기재 남아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물론 출어(出漁)도 안 한다. 그런데 제주섬은 설령 태풍이나 영등바람이 아니더라도 일년 내내 해륙풍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무풍(0.2m/s이하)인 날은 하루도 없게 된다.

바람을 신령시한 것은 제주인만 아니라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일찍부터 같은 생 각을 갖고 있었다. 장자(莊子)는 해방된 인간의 자유를 표방하는 소요(逍遙)의 상징을 구만리 장천을 날오는 대붕(大鵬)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대붕이 바로 북명(北冥)에 사는 불고기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붕은 구만리 장천을 날오는 대풍(大風)을 상징한다. 우리가 봉(鳳)과 더불어 쓰는 봉(鳳)이라는 글자는 바로 이러한 바람 '風'에 새가 들어가 있는 형상이다. '바람' 이야말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영(靈)이며, 신의 소리이니 봉(鳳)이나 봉(鳳)은 또한 신의 정령인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니라". 바로 여기서의 성령은 희랍어로 프뉴마(pneuma)이고, 프뉴마는 곧 바람인 것이다. 제주인이 신령시 하는 영등할망이 곧 대붕(大鵬)이요 프뉴마인 것이다.

〈그림 3〉 태풍 통과빈도(1940~1982)



자료: 気象研究所1983의 「颱風進路研究」에 9.3- 尺작성.

듬북 등)를 뜯어 올려 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생존에 유리함도 주었다. 그리고 매사에 철저토록 하는 '모지지기 정신'과 서방정토의 '이어도 사상'도 주었다.

미국의 예일대 교수인 헌팅턴(Ellsworth Huntington)은 문명발달의 조건으로 계절변화와 폭풍(storms)의 영향은 등가로 나타난다고하여 바람의 의의를 중시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모든 문명 지역은 폭풍과 같은 강풍이 인간활동의 자극제로서 1년에 20회 이상 불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주섬에서 특히 태풍은 제주인의 삶에 그와 같이 조장적(助長的)조건도 되었지만, 동시에 지장적(支障的)조건도

제주도가 이처럼 강풍 다풍지역이 되어 간 것은 위치에서 오는 것과 도서라는 데에 기인한다. 여기서의 위치란 제주도가 강풍의 통로가 되는 유라시아 동단에 존재함을 뜻하는 것이다. 즉 이 위치환경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이동성 저기압과 태풍의 통과지점이 되고, 여기에 낙도인 도서라서 지표 마찰에 의해 감속되지 않은, 즉 표면효과를 덜 받은 해상풍(海上風)이 지상을 지나는 육상풍(陸上風)보다 평균 2배나 강하게 불어와 풍세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람은 —광풍(狂風)과 같은 태풍은— 한여름의 가뭄을 해갈시키기도 하고, 수중의 해초류(속칭 감태와

20) Ellsworth Huntington(1945), CIVILIZATION AND CLIMATE, YALE UNIVERSITY PRESS, p. 230.

로도 존재하여 제주인들에게 아누스적인 존재였다. 즉 제주섬에서의 농사에 필요한 경우는 장마철의 전선성 경우도 있지만, 일단 장마전선이 북상해 버린 다음의 여름철은, 섬이기 때문에 한반도처럼 땅이 더워져 나타나는 상승기류에 의한 대류성 강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오로지 저기압성(태풍성) 강우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주기적으로 태풍이 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그르치게 된다.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제주섬의 한재(旱災)는 태풍이 와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제주는 바람불어 좋은 섬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제주인들에게 삶의 강한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섬사람들로 하여금 '모지지기'의 정신을 갖도록 했지만, 또한 사납고 자유분방한 그러나 뒤끝없다는 의미의 표한(標悍)·방사(放肆)한 성격을 갖도록 하기도 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의 얼굴을 갖는 바람은 가벼움인가 하면 격동이고, 움츠러듬이 있는가 하면 피어남이 있고, 정지인가 하면 돌진이기도 하다. 평화인가 하면 무차별한 파괴이고, 쓰다듬인가 하면 사정없는 타박거림이기도 하다. 그리고 느닷없이 현현했다가 소리없는 사라짐이 있다. 이외에 바람은 의식주 및 기타 모든 생활면에 영향을 주었다. 즉 수전 및 정동모 착용, 해조류 퇴비이용, 등짐운반, 큰 목소리(tone), 내풍성 가옥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도록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기할 것은 역시 주거경관에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전통 초옥민가는 세계적으로 특출하다. 즉 제주 초옥의 외부 지붕경관을 보면 세계 모든 지역의 초옥 지붕 꼭대기에 일자형(一字形)으로 뻗은 정선(正線)에서 보이는 지네 모양의 덮개를 씌운 용마름이 없다. 다만 구조적으로 구별되는 미끈한 '상모루'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겹집인 경우 예외 없이 단동일체형(單棟一體形)의 주가를 가지나 제주도만은 안거리(內棟), 발거리(外棟), 모거리(棟 혹은 行棟) 등으로 이루어진 다동분립형(多棟分立形)의 주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담이 처마끝까지 올려져 집을 완전히 감싸고 있으며, 가옥의 외벽이 돌담의 커튼벽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름용의 마당부뚜막을 두는 한반도와 달리 제주에서의 부엌기능은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낮고 허술한 굴뚝은 오히려 역풍을 받아 불리했을 뿐만 아니라 아궁이에 속에 밀어 넣은 난방 연료인 말린 마소똥을 밤 새 타도록 해야 했기에 아예 굴뚝시설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앞에서 제주인들은 '괘단질박(榘斷質朴)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제주인들은 특히 괘단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여, '모지지기 호라!'라는 말을 흔히 써 왔다. 이 말은 매사를 긴장된 속에 "적당히 어물어물 얼버무리지 말고 딱 부러지게 하라는 뜻"으로서 이완(弛緩)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다. 즉 이것은 낙천적이라는 한반도인들이 매사에 "괜찮아!" 혹은 "대충 해 뒤!"라는 말을 잘 쓰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제주인은 끔고 맺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 자동차>의 기업 홍보를 위한 광고는 초가지붕을 단단히 동여맨 격자형의 지붕줄 사진에 <미리 준비하는 정신, 단단히 여미는 지혜—제주에서 배웠습니다>를 써넣은 것이었다. 이 말을 제주방언으로는 <대음 하지 아니 하는 홍심(恒心), 모지지기 단돌이 하는 휘구

(知巒) 정도로 의역할 수 있지만, 이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들어 있다.

한해동안 키운 띠풀을 꼭꼭 새끼 꼬아
격자풀로 촘촘히 둘러 서까래에 단단히 묶어놓고
삼킬듯한 바닷바람에도 끄떡없고 살던 제주,
극한 상황을 꼼꼼하고 슬기로 준비했던
제주인의 든든한 정신을
오늘 ○ ○ 자동차 A/S가 이어갑니다.

제주인의 '모지지기' 정신은 주기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일본사람들의 철저함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태풍은 인간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른다. 미친듯이 몰아쳐 오는 태풍은 선박, 경지와 가옥, 생산 및 생활용구 등의 관리를 함에 있어서 대충해도 되는 한반도에서와 달리 철저하고 분명하게 해 두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사정 없이 쓸어가 버린다.

이와 같이 제주섬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여느섬과 달리 '바람 타는 섬'이다. 바람 타는 섬이란 여느 섬보다도 고립성을 더 갖는다는 뜻이다. 고립성을 갖는다는 뜻은 유사시에도 다른 지역의 다른 집단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인들은 옛부터 자기완결성(自己完結性)을 철저히 가졌다.

약 3년간 정의현감을 지냈던 김성구(金聲久)의 「남천록(南遷錄, 1679)」의 내용을 보면 제주인이 집착하는 자기완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지(內地: 한반도)의 군현(郡縣)은 관청에 비록 저축된 곡이 없다 하더라도 대동미(大同米)가 있고 상평창(常平倉)이 있으므로 혹 옮겨 올 방도가 없지 않다. 본현은 한 자의 과육도, 한 말의 쌀도 관출(辦出)할 길이 없으며, 밀기울도 없고 의탁할 수도 없어 선 채로 죽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과 한가지다.

18세기의 저명한 실학자인 우하영(禹夏永)도 그의 「천일록(千一錄)」에서 변경의 낙도로서 흉년시 고립무원한 —그래서 제주에는 다른 지방에 거의 볼 수 없는 자구수단으로서의 '미계(米契)', '부조계(扶助契)'마저 있었지만— 제주섬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기도 했다.

대저 도중(島中)은 육지와 다른 바가 있어 한번 흉년이 들면 진실로 육지에서 실어 오는 곡(穀)이 아니면 천금(千金)의 보배가 있어도 팔아서 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나창(羅倉)'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²⁴⁾

제주인의 자립주의(自立主義: Autarkism)는 여기서도 키워져 갔다.

다음에 제주섬은 돌이 많은 위에 화산회토의 땅을 가졌기에 화폐로서의 미화(米貨)는 물론 포화(布貨)도 생산할 수 없었고, 긴요한 소금도, 약재도, 쇠붙이도 나지 않았다. 어디서든 화폐가 될만한 상품을 생산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곳은 바다 밑을 뒤지는 수밖에 없었다. 제주섬은 천만다행하게도 방패를 얹어 놓은 모양의 아스피테형 화산을 이루었다. 해안선에서 수킬로미터까지 '결바당(암석바다)'을 이룬 것이다. 한국의 지배문화지대인 반도 남서부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남해안과 서해안은 구성물질이 갯벌로 되어 있으나 제주근해는 암석으로 되었기에 다종다량의 해조류와 그것을 먹이로 하는 다종다량의 어패류가 풍부했다. 그 모두가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서는 희소하여 상품가치가 매우 높았던 자원들이었다. 그래서 17세기 이전까지는 남자 잠수부인 '보재기(浦作人)'가, 그 이후는 여자로서 '좀네(海女)'가 해산물을 채취했다. 보재기와 좀네는 생산자였기에 이를 다른 지역에 내다 팔고 다시 제주섬에서 필요로 하는 유통 담당자가 있어야 했는데 이들을 제주에서는 '배임제(船主)'라 하였다. 배임제는 전문적인 뱃상인일 때도 있지만, 보재기가 배임제를 겸하기 했다.

제주문명을 거론할 때 실로 이 보재기, 좀네, 배임제 3자를 제외하고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 바로 이들이 제주섬의 버팀목으로 역할을 해 온 '해민(海民: seaman)'들이라 불릴 사람들이다. 이 해민을 고선휘 박사는 '해인(海人)'이라 부르고 있지만, 해민의 개념은 해인(fisherman)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들 해민들은 역사시대 이전부터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역사기록에 의해서만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A.D. 3세기 경 "주호(州胡=탐라)가 배를 타고 왕래하여 한 중에 거래한다"라는 기록이 있는 서진(西晉)의 진수(陳壽)가 쓴 중국의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이 있고, 476년(문주왕 2년)에는 백제와, 662년(문무왕 2년)에는 신라와 공식 관계를 기록한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와 <신라본기(新羅本記)>가 있다. 그리고 일본과 661년(天智天皇 元年)에 공식 교류를 기록한 일본서기(日本書記) <제명기(齊明紀)>가 있다. 8~9세기 경에 당(唐) 나라의 해외무역 최대 상대국은 바로 탐라국이였다. 또한 A.D. 7세기 신라 선덕여왕 때 세워진 황룡사 9층탑은 신라가 주변 9개 나라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그 4층은 탁라(托羅: 탐라)의 세력이 두려워 탐라를 의식해서 세웠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이다.²¹⁾

제주인들에 가장 친숙히 알려져 있는 <남선비 신화>에서의 남선비는 양반 예비생인 유생(儒生)으로서 선비가 아니라 주로 쌀을 파는, 즉 무곡(貿穀) 전문의 해상(海商)의 이름으로 미루어, 이처럼 제주 사람들은 이미 신화시대부터 해상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의 역사를 보더라도 규모성 있는 12척의 대 선단의 선주(船主)로 해상 교역을 하여 제주뿐만 아니라 전라 제1감부라 알

21) 禹夏永, "千一錄," [實學研究入門], 歷史研究會 編(1973), 一潮閣, p. 250.

22) 제1층은 일본, 제2층은 중화(中華), 제3층은 오월(吳越), 제4층은 탁라(托羅), 제5층은 응유(應遊), 제6층은 말갈(靺鞨), 제7층은 단국(丹國), 제8층은 여적(女狄), 제9층은 예맥(濊貊)이다.

려졌고, 그리고 제주도의 장보고로 전설화되다시피 한 인물인 제주의 '송 대정(宋 大靜, 본명은 斗玉, 1850년 제주시 1도1동 1301번지 출생) 과 여거상(女巨商) 김만덕(金萬德), 구좌의 부 대각(夫 대각, 본명은 道生), 김녕의 한씨선주(韓氏船主)라는 저명한 해민들이 등장한다. 이 시기에 해민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화북의 부씨선주, 표선의 김씨선주, 법환리의 강씨선주, 신촌의 김씨선주 등이 또한 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조천 안씨선주, 송씨선주, 박씨선주 등 이름난 해상(海商)²³ 해민들이 또한 있다. 물론 사전적인 좁은 의미로서의 포작인이라는 용어는 왕왕 남녀노소 구별함이 없이 바다 속의 유용재를 채집 획득하여 생활하는 사람 즉 금사대의 선주라 할 모슬포의 수발 김묘생으로 대표되는 어부나 해녀 등의 '해인(海人)' 만을 말하나 이들은 그 수에서는 전자를 압도하여 제주해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제주섬의 버팀목으로서의 기층민중들이었다. 물론 해녀수가 최대일 때(1966년)라도 2만4천268명(여성 총인구 17만6천545명의 13.9%)밖에 안되었으나 그들의 수입이나 문화적 영향력에서는 절대적 지위를 차지했다. 1996년 12월 현재 해녀수는 6천298명이다.

바다에서의 생활은 목숨을 건 생활이다. 그러기에 해민사회는 신앙심이 강하여 도처 당을 만들어 당신(堂神)을 모셨다. 또한 그들은 개체주의에 기반하여 경쟁심을 조장하고 동사에 대동주의에 기반한 연대의식을 강하게 갖는다. 여기서 제주인들은 "심백이랑 허곡 계움이랑 허질 말라"라는 경구를 만들어 놓았다.

해녀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대상군(大上軍),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으로 나누어 조직을 운영하지만, 그 구분은 나이나 경력, 연공서열 그리고 가문(家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귀속적 지위가 아니고 실력에 따라 구분되는 성취적 지위가 된다. 그리고 수심 10m 정도 잠수하지 못하면 좁게 족에 끼지도 못한다.

보재기나 배임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육상에서의 농경사회에서는 나이만 들면 경험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바다와 온갖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과 상대해야 하는 해양생활에서는 강한 근력에 더하여 총명한 지력이 겸해 있지 않으면 조직원을 파멸로

23) 송석범(1969), "재력과 권세를 함께 누린 [송 대장]," [제주도], 제44호, pp. 125~129.

송 대장의 본관은 여산(羅山)으로 미역 등 주로 해산물 교역에 의해 갑부가 되었으며, 그의 형인 송지옥도 18척의 대 선단을 이끄는 해상이었다. 그러나 동생인 송두옥은 이재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명리에도 밝아 명월(明月) 만호의 벼슬에서부터 정의현감, 제주판관, 대정현감을 거쳐 지방민이 좀처럼 얻기 어려운 비서원 승지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통정대부(정3품), 가신대부(종2품)를 더하였다고 한다.

李煥勳(1989), 日帝下 濟州島의 人口變動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大學院, p.37.

宋斗玉은 1898년(광무 2) 방성칠란 때 토벌군을 지휘하던 대장이었으며 전직 대정군수로 민중들의 원성을 샀으며, 1901년(광무 5) 天主敎亂 때는 민중들로부터 난괴로 지목되어 가택을 습격 당하기도 했던 자이다.

현길연(1981), 前樹菴, p. 193.

수산물을 내가고 무곡(粟)을 들여와 파는 부 대각이라 하는 해상은 성산 서흥리(심돌) 출신으로 본명은 大道生이다. 워낙 힘이 센 장사라서 남해안 해적들을 제압했다

이끌 수밖에 없다. 최초의 중국 주재 영국 대사였던 마카트니 경(Lord Macatney)은 사회변혁은 없어 사람만 바뀌어지는 동양의 역성혁명(易姓革命)을 듣고 보고나서, 바다사람(海民)답게 “부족한 사람이 갑판 위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배의 기강과 안전은 작별을 고한다.”라는 말로 빗대어 바다를 모르는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은 실력자에 대해 ‘배의 조타수가 과도를 헤치고 항로를 열어가는 능력’에 비유하지만, 바다에서만은 문무를 겸하지 않으면 실력자가 될 수 없었고, 따라서 실력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질은 달라졌다. 그것은 곧 배분적 정의를 존중한 결과에서 올 수 있는 사회적 정의다.

그러나 해민들은 배분적 정의만이 정의의 모든 것이라 보지 않았다. 노약자와 불우한 자(홀애비 등)를 위해서 ‘할망바당’을 만들었고 ‘폼증제’를 실시했으며, 아울러 뱃동서 의식을 늘 실천했다. 즉 구분적 정의를 실천했다. 이것은 경쟁이 없으면 게을러져 의퇴심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 박애를 실천 않으면 공동체의 대동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절묘하게 경쟁과 연대를 조화시켜 온 제주섬의 사람들만 행할 수 있었던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었다. 이런 정신문화 속에서 도둑과 거지가 나올 리가 없으며, 부자와 빈자가, 어른과 아이가, 남자와 여자가 근원적 갈등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IV. 정신문화 인지도

제주인들은 장기지속성의 역사로서의 지리적 환경 중 제주인들에게 가장 자극적인 환경은 바다였고, 이 바다를 극복한 결과가 제주정신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검증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설문조사는 필자 작성한 10문항을 <제주발전연구원>이 <Research & Databank>에 의뢰해서 했고, 똑같은 내용으로 필자 역시 예비조사를 해 보았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의뢰를 받은 <Research & Databank>는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필자는 제주도 신입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²⁴⁾

24) 이 조사에서 제주인의 심성적 특성은 ‘광풍촉석(狂風觸石)과 같다’라는 비유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80.7%(예비조사: 92.1%)나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은 ‘선천적인 강한 의지의 소산 (24.8%)’으로 보다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라는 쪽이 70.9%(예비조사: 98.4%)로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상징동물로는 돌고래가 2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큰오색딱다구리(24.6%), 바다거북이(20.0%), 뱀(13.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바다거북이 23.4%, 큰오색딱다구리 21.8%, 돌고래 18.8%, 뱀 14.0% 순이 되고 있다.

〈표 6〉 제주섬의 혁신지는 누구였는가(Research & Databank)

	자급농경 생활자	상인·해녀등의 바다생활자	용구제작 생활자	선비양반	계(%)
제주 섬의 선인들 중 기득권 유지 때문에 변화를 가장 싫어했던 계층은?	17.2 (4.7%)	11.5 (7.8)	4.7 (3.1)	66.6 (94.4)	100 (100)
제주 선인들 중 모험심과 도전정신으로 제주섬의 문명을 이끈 계층은?	20.1 (4.7)	69.0 (92.1)	4.5 (1.6)	6.4 (1.6)	100 (100)
제주 선인들 중 자유와 민주, 경쟁과 연대를 가장 신봉했던 계층은?	32.6 (9.4)	49.2 (65.9)	3.0 (1.6)	17.1 (3.1)	100 (100)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제주 선인들의 정신이 있다면 어떤 계층들의 정신을 가장 먼저 내세우시겠습니까?	25.1 (4.7)	62.7 (95.3)	3.5 (0.0)	9.2 (0.0)	100 (100)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부(육지부)의 문명을 이끌어 온 계층은?	21.5 (29.7)	22.8 (25.0)	12.3 (6.3)	43.4 (99.0)	100 (100)

자료: 제주발전연구원(1997, 11),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 pp. 16~26.

모집단: 제주도 거주 만 20세 이상 남·여

표본크기: 1,000(A형 유효표본수 968, B형 유효표본수 956)

표본추출방법: 할당표본추출방법 및 군집표본추출법(자료 1997 제주도통계연보)

표본오차: ±3.1%(95% 신뢰수준)

() 속은 필자가 산규공무원임용자 남·여 70명을 대상으로 간이조사해 본 값임.

위의 내용은 설문 10문항 중의 부분이지만, 여기서의 “상인·해녀 등의 바다생활자”란 곧 ‘해민’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사람들의 정신생활(세계관)에 가장 크게 자극을 준 자연환경 요소는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역시 57.2%(지형 31.7%, 지질 4.8%, 동·식물 2.7%, 기타 3.5%)나 되고 있다. 그리고 해민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이조사에서는 70.3%(지형 20.3%, 지질 7.6%, 동·식물 0.0%)의 절대 다수가 바다와 제주인의 세계관이 가장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정황을 볼 때 제주섬의 정신은 곧 해민의 정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esearch & Databank>의 조사에서처럼 상당 많은 응답자들은 정작 위 <표 6>의 내용을 종합 수렴하여 패러디한 용어로서의 ‘해민정신’의 ‘해민’에 대해서는 그 말이 나온지가 일년도 채 안되어서 아직은 인지도가 낮아 일관성 있는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세계화할 수 있도록 제주섬의 후세들에게 계승 발전시킬만한 21세기 시대정신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지역정신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의 응답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물음에 응답자들이 아래 표에서와 같이 ‘자낭정신’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다음에 ‘삼무정신’, ‘수놓음정신’ 순이 되어 3순위까지 모두 이념 아닌 규범에 해당하는 정신을 택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응답자들이 ‘해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때문은 온 것이기도 하지만, 규범(norm)과 이념(ideology)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 풍토가 없어서 이 양자를 혼동해 버린 결과에서 오는 현상이라 하겠다.

〈표 7〉 제주정신의 대표성 ①(Research & Databank)

조낭정신	수놓음정신	삼무정신	정낭정신	선비정신	해민정신	장두정신	농민정신	장인정신	계(%)
40.5	13.1	24.0	4.2	1.0	10.9	3.2	1.5	0.2	100

자료: 제주발전연구원(1997. 11),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 p.24.

표 속의 굵은 글체는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규범(norm)을 묻는 문항과 이념(ideology)을 묻는 문항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것임.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동일시의 대상 〈표 6〉 속의 굵은 글체로 된 정신들 중에는 해민정신이 10.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다소나마 일관성이 나타나고 있는 있다. 만약 이념에 해당하는 정신들만 따로 분리하여 제주정신의 대표성을 물었다면 해민정신에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있었을 것이다. 굵은 글체로 된 정신(이념)들에 한정해서 보면, 해민정신에 응답한 값(10.9%)을 100으로 보았을 때, 장두정신은 29.3, 선비정신은 9.1, 농민정신은 13.7, 장인정신은 1.8밖에 되지 않고 있다.

〈표 8〉 제주정신의 대표성 ②(필자의 예비조사)

	조낭정신	수놓음정신	삼무정신	정낭정신	선비정신	해민정신	장두정신	농민정신	장인정신	계(%)
강의 전	20.6	7.9	15.9	3.2	0.0	50.8	0.0	1.6	0.0	100
강의 후	1.6	0.0	1.6	0.0	1.6	92.0	3.2	0.0	0.0	100

자료: 1997년 11월 6일 <제주도공무원교육원> 교육생 70명 대상으로 조사 표 속의 굵은 글체는 설문조사자에게는 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결과는 필자가 1997년 11월 <제주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예비조사는 필자가 <제주인의 해민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의(교육) 전, 후의 응답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임용공무원 중에는 이미 필자에게 교육을 직, 간접으로 받은 <제주대학교> 출신이 많아서 '해민정신' 이 제주인의 정신이라고 응답한 자가 5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조낭정신' 으로 20.6%, '삼무정신' 이 15.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의 종료 후 강의 전에 자신이 응답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수정하도록 했던 바, 해민정신에 응답하지 않았던 나머지 약 42%의 응답자들이 해민정신을 택하여 결국 92.0%가 '해민정신' 이 제주정신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민들은 이념적인 제주정신은 '해민정신' 으로 규범적인 정신으로는 '조낭정신' 을 으뜸으로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도민 대부분은 이념과 규범을 차별화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지적 풍토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모든 문화집단들에서 ① 의연하게 자존, 자궁할 수 있는 지역정신, ② 자신있게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지역정신, ③ 아름답게 편익·미려함을 갖춘 지역정신, 환연하면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시대정신으로서의 의연하고, 자신있고, 아름다운 지역정신을 찾고 있다.

제주인들은 바람과 돌과 화산회토, 그리고 잡초의 도전에 응전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한 자극은 사나운 바다 풍파와의 싸움이였다. 그러한 과정에 제주인들의 정신 속에는 개체주의와 대동주의가 나타났다. 균분상속제·수놓음·겹부조·신거운거제·높은 이혼율·배분적 정의의 존중 등은 모두 개체주의의 소산이며, 공동목장·공동어장·본향당·할망바당·품증·뱃동서 의식, 그리고 오늘날의 컨벤션센터 공동출자, 먹는 샘물공장 건설 등은 모두 대동주의의 소산이다. 이 모두는 결코 한반도부에는 없는 정신이며, 현상이지만, 오늘날 모든 세계 인류가 지향하는 이념이다. 즉, 동양은 가족적 집단주의에서 벗어나려 힘쓰고 있고, 서양은 원자적 개인주의를 지양하려 인간힘을 쓰고 있는 바, 그 조화점은 바로 제주선인들이 만들었던 개체적 대동주의(Individual corporativism)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주섬의 문화는 한반도부와 공통점 속의 차이점을 뚜렷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명지역이 되고 있다.

구릉성 산지의 한반도의 전통문화의 원형은 혈연의 씨족연합공동체를 특징으로 하는 선비양반의 문화이고 종법사회의 문화이며, 반도인의 문화이고 지주경제(水田+大陸)의 문화이다. 그에 반해 화산회토로 된 산고원야(山高原野)의 풍다도(風多島)에서 생성 갈려져 온 제주섬의 전통문화의 원형은 지연의 씨족결합공동체를 특징으로 하는 민중 내지 평민의 문화이며, 도서해양인의 문화이고 자작경제(阜田+島)의 문화이다. 이 두 지역의 문화를 달리 비유하면 한반도가 혈연공동체(Ethnos)로서 공자적이고, 헤브라이즘적인 권위와 규격과 귀속지향의 문화를 갖는다면, 제주섬은 지연공동체(Demos)로서 목자적이고 헬레니즘적인 평등과 자유, 그리고 성취지향의 문화를 갖는다 하겠다. 이와 같이 한반도와 제주섬의 전통적 문화는 서로 대동소이(大同小異)가 아니라 대이소동(大異小同)의 관계에 있다 하겠다. 한반도부의 공자적이고 그래서 혈연적 규범은 한국인을 위한 구약윤리(舊約倫理=臣民倫理)였지만 제주섬의 목자적이고 지연적인 규범은 한국인의 미래를 위한 신약윤리(新約倫理=市民倫理)가 될 것이다.

제주섬에서도 개체적 대동주의를 실천한 계층들은 보재기·좁네·배임제 등의 해민(海民)들이였기에 제주인들이 동일시해 온 상징적인 정신은 자립, 개척, 자유, 평등, 품증 등의 다면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해민정신(海民精神: Seamanship)' 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적 정체성(原型)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굳이 말한다면 이 해민정신은 양반 내지 선비, 그리고 지주를 통칭하는 한반도부 호강(豪強)들의 호강정신(豪強精神: Hogangism = noblesse oblige)과 대비될 수 있다. 해민정신은 귀족정신(aristocratism)이 아니라 중민정신(democratism)이다.

공동체정신으로서의 이념문과 구성체계

	미국정신	중국정신	일본정신	한국정신	조선(북한)정신	제주정신(Chejuism)
심상이념	개인적국가주의 (市民社會)	집단적개체주의 (臣民社會)	지역적집단주의 (臣民社會)	가족적집단주의 (臣民社會)	민족적집단주의 (人民社會)	개체적대동주의 (平民社會)
표상이념	개척자정신 Pioneership	군자정신 Confucianism	무사정신 Samuraiship	호강정신 Hogangism	혁명가정신 Revolutionism	해민정신 Seamanship
실천이념	실용주의	평등주의	수분주의	출세주의	평등주의	자립주의 (삼무정신)
인간관계	zero-sum game	win/win game	zero-sum game	zero-sum game	win/win game	hegemonie game

제주섬의 지역정신으로 해민정신 즉 개체적 대동주의에는 보편성(세계성)이 있을까? 이에 대한 검증은 우선 한국의 국가 이념에 대입해 보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헌법 제1조 1항에 제시한 이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나라의 명시된 국호(국가이념)는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혹은 ‘~민주공화국’, ‘~공화국’이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실체가 ‘가족주의공화국’ 혹은 ‘사회주의공화국’, 아니면 ‘개인주의공화국’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개체를 인정하고 대동을 지향하여 양자를 조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개체를 인정 않는 민주(民主)는 공허하고, 대동을 실천 않는 공화(共和)는 위선이지만, 제주인들의 ‘개체적 대동주의’에서의 ‘개체적’은 민주에, ‘대동주의’는 공화에 바로 부합된다. 따라서 제주인의 개체적 대동주의의 제주이즘 즉 해민정신은 가장 예스러우면서 가장 새로운,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그래서 가장 지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보편정신이 됨에 손색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독특성을 갖는 제주정신이기에, 해민정신으로 표상되는 제주이즘은 외부세계와의 고립 지향이 아니라 차이점 속의 공통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외관계를 지니려는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한국인들의 정신을 선비정신이라고 하지만, ‘유교민주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형용모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와 같이 ‘선비정신’은 권위주의적 민족주의를 함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우며 양자는 서로 대립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긴장관계’에 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민족의식을 함의하는 개체적 대동주의의 해민정신(제주이즘)은 문화적 최고체계(cultural supersystem)로서 민주주의,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에 바로 부합된다 하겠다.

參考文獻

- 강준만, "집단주의와 성격의 상품화," [지성과 패기], 선경그룹, 1994, 9 10월호.
- 국토개발연구원, [중산간지역종합보고서], 국토개발연구원, 1997.
- 京畿道, [京畿道史] 第二卷, 1982.
- 氣象研究所, [颱風進路研究], 1983.
- 김여칠, "사회과 가치교육의 문제제," [달라져야 할 사회과 교육], 강우철 편, 고려사, 1992.
- 金泰午, [民族心理學], 有吉書店, 1955.
- [羅鶴天秘訣 八道名山秘].
- 대한민국 농림부, [1960 農業國稅調査-시군읍면통계-], 1964.
- 리쿱틴, "루카치 '역사와 계급의식' 조명," [광장], 1988.6월호.
- M. 미테로(1982), "전산업사회의 대가족의 신화," - 박숙자 역, [가족과 성의 사회학], 박숙자 외 편역, 사회비평사, 1995.
- 새뮤얼 헌팅톤(1996),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이희재 옮김, 김영사, 1997.
- 송복, "지역갈등의 역사적 설명," [韓國의 地域主義와 地域葛藤], 韓國社會學會 編, 星苑社, 1990.
- 송석범, "재력과 권세를 함께 누린 [송 대장]," [제주도], 제44호, 1969.
- 慎鍾廈, "朝鮮王朝末.日帝下 農民의 社會的 地位와 經濟的 狀態," [韓國史 市民講座], 一潮閣, 1990.
- 丙甫海, "韓國의 風土와 人情," [歷史를 만든 韓國人1], 韓國出版公社, 1985.
- 尹河濬, "프랑크푸르트학파의 現代의 意義," [광장], 1988.6월호, pp. 176~177.
- 李京漢, "地理科의 價値授業過程 開發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李夢日, [韓國風水思想史], 明寶文化社, 1991.
- 禹夏永, "千一錄," [實學研究入門], 歷史研究會 編, 一潮閣, 1973.
- 제주발전연구원,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 1997.
- 黃景淑, "惠岡 崔漢綺 사상의 근대적 성격," [실화와 의식의 사회학],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제47집, 한국사회사학회, 문학과지성사, 1995.
- 黃善明 외, [韓國近代民衆宗教思想], 학민사, 1983.
- 山野正彦, "F. Ratzel의 再評價に關する一つの試み," 人文地理 24卷3號, 1972.
- 西川 治, [人文地理學入門], 東京大學出版部, 1993.
- EDMUNDS V. BUNKSE, "HUMBOLDT AND AN AESTHETIC TRADITION IN GEOGRAPHY", The Geographical Review, April, 1981, Vol.71, No2.

- Ellsworth Huntington, CIVILIZATION AND CLIMATE, YALE UNIVERSITY PRESS, 1945.
- F. K. Schaefar, "Exceptionalism in Geography, Methodological Examination," A. A. A. G., 43, 1953.
- I. Wallerstein, Geopolitics and geoculture, CAMBRIDGE UNIV. PRESS, 1991.